

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6년 전망

전병유·강승복·정성미*

I. 머리말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회복과 수출호조로 안정적인 경기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며 2005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상승국면에 진입했다. 비록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소비의 증가 등 전체 내수의 회복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반기에 큰 폭으로 둔화되었던 수출증가율도 3/4분기 이후 반등하여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상반기에 3.0%에서 하반기에 4.7%(한국은행 추정치)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2005년 고용사정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 비록 2005년 1/4분기에는 취업자증가율(0.6%), 고용률(58.5%), 실업률(4.2%) 등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2/4분기 들어 꾸준히 고용실적이 개선되었으며 경기회복과 내수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6년도 노동시장 역시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글에서는 2005년 고용동향의 주된 특징들을 살펴보고 올해의 경제상황과 경기동향을 토대로 2006년 고용상황을 전망한다. 아울러 향후 고용정책에서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전병유=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byjeon@kli.re.kr).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sbkang@kli.re.kr).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smjung@kli.re.kr).

II. 최근 고용동향 및 주요 특징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및 고용상황 개관

2005년에는 2004년의 경기회복에 탄력을 받아 실물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으나 상반기의 수출증가율의 둔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성장을 하였다. 2005년 1/4분기의 취업자증가율(0.6%), 고용률(58.5%) 그리고 실업률(4.2%) 모두 2003년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 봤을 때,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악화된 고용사정을 나타냈다(표 1 참조). 그러나 2005년 하반기 들어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 내수회복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고용실적도 상반기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내수의 증가가 고용시장에 뒤늦게 영향을 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후의 상황도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표 1〉 2001~2005년 고용실적

(단위 :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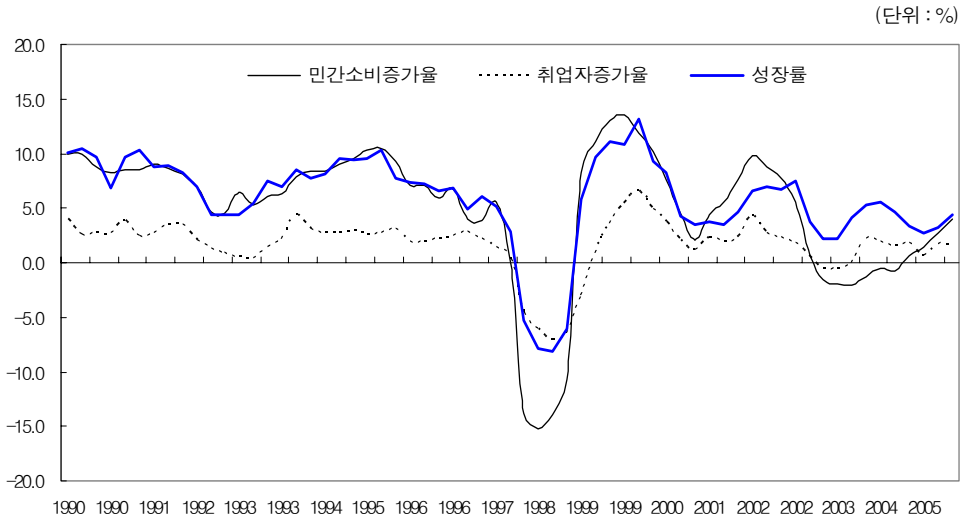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1/4	2/4	3/4
				(1~11월)			
경제성장률	7.0	3.1	4.6	3.9 ^p	2.7	3.3	4.5
생산가능인구	36,963 (1.0)	37,340 (1.0)	37,717 (1.0)	38,281 (1.5)	38,010 (1.2)	38,275 (1.6)	38,426 (1.7)
경제활동인구	22,921 (2.0)	22,957 (0.2)	23,417 (2.0)	23,762 (1.5)	23,221 (0.8)	24,004 (1.8)	23,893 (1.8)
취업자 (증가율) (증감수)	22,169 (2.8) (597)	22,139 (-0.1) (-30)	22,557 (1.9) (418)	22,870 (1.4) (308)	22,247 (0.6) (143)	23,126 (1.7) (382)	23,026 (1.7) (379)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여성)	62.0 (75.0) (49.8)	61.5 (74.7) (49.0)	62.1 (75.0) (49.9)	62.1 (74.6) (50.2)	61.1 (74.1) (48.8)	62.7 (75.3) (50.8)	62.2 (74.6) (50.4)
고용률	60.0	59.3	59.8	59.8	58.5	60.4	59.9
실업자	752	818	860	892	975	878	867
실업률 (남성) (여성)	3.3 (3.7) (2.8)	3.6 (3.8) (3.3)	3.7 (3.9) (3.4)	3.8 (4.0) (3.4)	4.2 (4.4) (3.9)	3.7 (3.8) (3.4)	3.6 (4.0) (3.2)

주 : p는 한국은행 전망치임.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한국은행, 『2006년 경제전망』, 2005. 12.

(그림 1) 경제성장률, 민간소비증가율, 취업자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0%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하반기에는 4.7%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한국은행, 2005. 12), 취업자증가율도 2005년 1/4분기의 매우 저조한 고용증가에서 반등하여 2/4분기 이후 1.8%의 고용증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노동공급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2005년 1/4분기(61.1%) 이후 증가하여 11월 62.1%를 기록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노동력 활용정도를 보여주는 고용률도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감소한 48.8%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와 3/4분기에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씩 증가한 50.8%와 50.4%를 기록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한 11월까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50.2%를 기록하여 2005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여성 인구가 증가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인구 수가 5월 이후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1/4분기 전년동기대비 0.4%포인트나 하락하여 74.1%를 기록하였고, 이후 3/4분기에 0.3%포인트 하락하여 74.6%를 나타냈다. 또 2005년 11월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4.6%로 이것은 2003년(74.7%) 경기침체기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참가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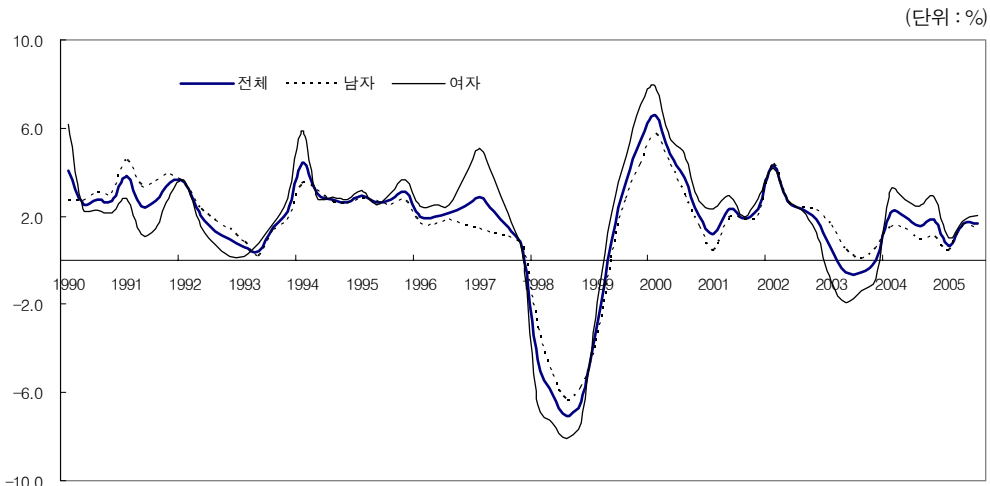
2005년(1~11월)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에 고용사정이 더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취업자증가율은 1.8%인 반면, 남성의 취업자증가율은 1.1%에 그쳐 여성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그림 2 참조). 여성 고용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역은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순으로 여성 취업이 늘어났다.

여성의 공급증가와 더불어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여성 실업률은 3.4%를 기록해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남성의 공급증가는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실업률은 4.0%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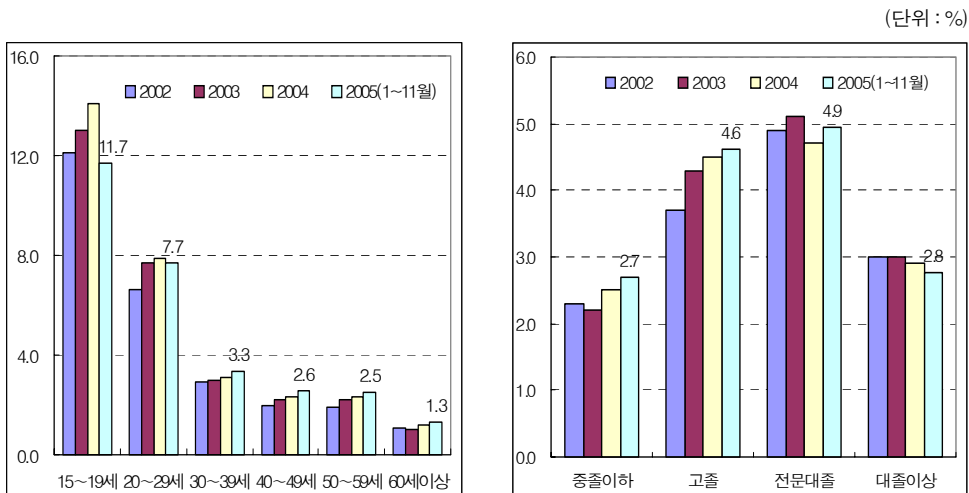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지난해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던 15~29세의 경우 올해(1~11월)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여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연령계층

[그림 2] 성별 취업자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그림 3] 연령별 및 학력별 실업률 추이



주: 2005년 1~11월 수치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에서 고용위기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 좌측 참조).

한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감소한 반면, 전문대졸에서 실업률이 상승하였고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학력자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 편중되고 있어 저학력자의 고용기회가 점점 더 제약될 받게 되고 있다(그림 3 우측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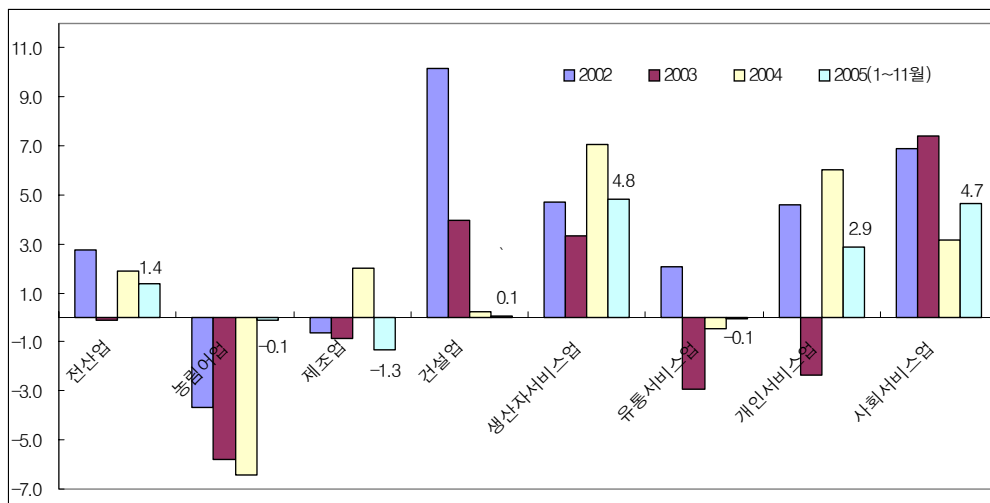
2.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최근의 고용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는 경제양극화를 배경으로 하는 산업별 불균등 성장으로 인한 고용창출능력의 하락일 것이다. 고용창출이 어느 산업에 의해 주도되는지의 문제는 고용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별 생산과 고용 관계를 분석하여 현재 고용사정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5년(1~11월)에는 생산자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산업에 걸쳐 고용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비중이 큰 제조업과 고용안정판의 역할을 해오던 유통·개인서비스 부문의 침체는 서민층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을 낮추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산업별 취업자증가율

(단위: %, 전년대비)



주: 1) 2005년 1~11월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생산자서비스업(Producer services)=사업서비스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

3) 유통서비스업(Distributive services)=도·소매업+운송업+통신업

4) 개인서비스업(Personal services)=숙박·음식업+오락·문화사업+가사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Social services)=공공행정서비스업+보건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사회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조). 개인서비스의 경우도 서비스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고용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비스업에서의 고용구조 조정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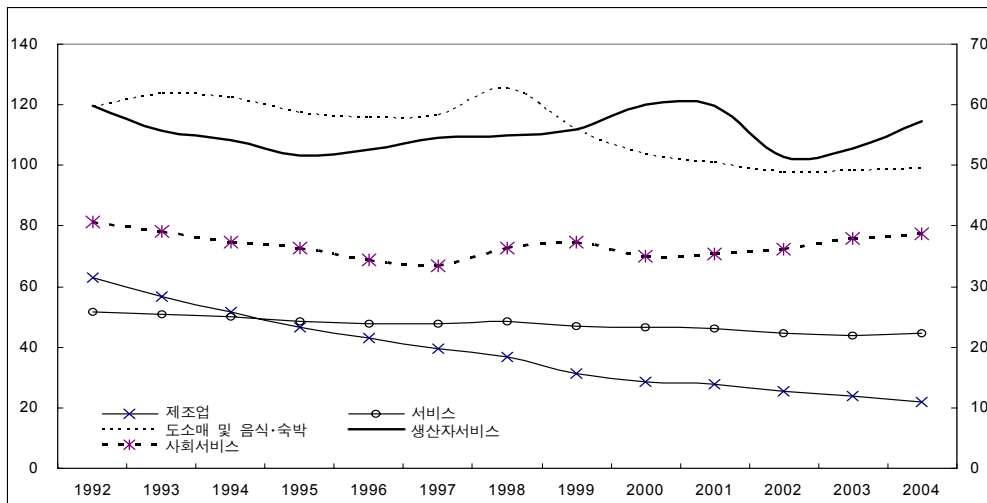
세부 업종별로는 통신업(11.9%)과 부동산 및 임대업(9.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8%)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고, 그 뒤를 이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9.4%)의 증가세가 꾸준하다(부표 1 참조). 그러나 사업서비스업(5.6%), 숙박 및 음식점업(0.0%) 등은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에 취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2.5%)이며, 도매 및 소매업(-1.5%)과 제조업(-1.3%) 등에서도 두 산업 모두 전년대비 각각 57천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취업계수란 생산에 직접 필요한 취업자수를 의미하며,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를 총산출액으로 나눈 수치이다. [그림 5]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취업계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5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 취업계수보다 낮아졌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4년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GDP 10억원당 22명이다.

반면 서비스업에서의 취업계수는 1995년을 기준으로 GDP 10억원당 50명에서 약 45명으로 줄어들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업에서의 고용흡수력이

[그림 5]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 추이

(단위: 명/십억)



주: 1) 취업계수=취업자/GDP(10억원)

2) 서비스업=도소매 및 음식업+운수창고 및 통신업+금융보험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기타서비스업

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좌측 축, 나머지는 우측 축 기준.

자료: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제조업에서보다 매우 높다(부표 2 참조). 취업계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나 자본집약적 생산증가 등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의미함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등의 고용흡수력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조업에서의 하락추세가 인력감축에만 기초로 하는 생산성 증가의 현상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998년 이후 취업계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생산자서비스업은 2002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사회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용유발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용탄력성란 경제성장률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취업자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표 2>의 고용탄력성 추세를 살펴보면 2005년(1/4분기~3/4분기 평균) 3.5%의 성장을 하였고 1.4%의 취업자가 증가하여 고용탄력성은 0.39(경제성장 1% 증가할 때 취업자는 0.39% 증가)로 나타났다. 이 고용탄력성은 2000년 0.53의 최

<표 2> 산업분류별 고용탄력성 추세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생산자	사회서비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1993	0.20	-1.02	0.85	1.75	0.95	0.64
1994	0.40	0.07	0.75	0.90	1.02	0.61
1995	0.33	0.11	0.58	0.40	0.88	1.38
1996	0.34	-0.30	0.78	0.76	1.14	0.58
1997	0.36	-0.82	0.91	1.31	1.28	1.15
1998	-1.05	1.73	0.62	0.43	1.43	-6.31
1999	0.20	0.13	0.57	0.19	1.41	1.99
2000	0.53	0.39	0.72	0.03	2.01	-1.60
2001	0.50	-0.28	0.86	0.46	2.63	1.12
2002	0.41	-0.08	0.52	0.39	0.43	1.80
2003	-0.04	-0.15	0.15	0.86	2.20	2.11
2004	0.40	0.18	2.54	-0.38	-	1.49
2005	0.39	-0.22	0.89	-0.76	1.47	1.93

주: 1) 고용탄력성=취업자증가율/GDP증가율.

2) 취업자증가율은 2005년 1~11월 평균, GDP증가율은 2005년 1/4~3/4분기 평균.

3) 서비스업=도소매 및 음식업+운수창고 및 통신업+금융보험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기타서비스업

4) 생산자서비스업(Producer services)=금융보험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Social services)=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자료: 통계청, KOSIS.

고점에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고용탄력성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높은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2001년 이후 제조업 고용탄력성은 2004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마이너스로 나타나 고용 없는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은 1993년 이후 매년 플러스의 값을 보이고 있어 성장에 따라 고용이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2004년을 제외하고는 1보다 작은 고용탄력성을 나타내고 있어 경제성장에 비해 취업지수의 증가 정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003년까지 플러스의 고용탄력성을 보이다 2004년과 2005년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고용흡수력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은 모두 1 이상의 고용탄력성을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효과가 실현되려면 이전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이 요구된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증가에 따른 취업감소효과를 상회하는 정도의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취업자 증가가 실현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업종의 생산자서비스나 사회서비스업 부문을 활성화하여 고용증가에 탄력을 부여하는 것이 향후 고용여력을 확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일용직, 단시간 취업자 등 취약고용 증가

2005년(1~11월) 고용형태별 취업동향을 살펴보면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세 둔화와 자영자의 증가로 인하여 2년 연속 지속되던 비임금근로자의 감소가 멈추고 올해 들어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특히 상용직 근로자 중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표 3 참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는 꾸준히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지난해까지의 증가를 뒤집고 올해 감소하였으며, 자영업자는 2003년 이후 안정세를 찾아 2005년 1.8%의 증가를 나타냈다.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감소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2005년에는 감소추세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0%의 증가를 보여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임시근로자의 증가가 2005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4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용근로자는 임시근로자에 비해 더 열악한 고용조건과 불안전성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임시직 근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일용직 근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 4>를 통하여 알아

〈표 3〉 종사상지위별 고용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2001	2002	2003	2004	2005 (1~11월)			
					1/4	2/4	3/4	
비임금근로자	1.5	0.9	-3.1	-0.9	0.1	-1.3	0.1	1.0
고용주	6.6	4.0	0.8	3.1	-1.0	-2.6	-1.4	0.5
자영자	2.0	1.7	-3.5	0.4	1.8	1.5	2.2	1.9
무급가족	-3.5	-3.5	-5.8	-8.3	-3.7	-8.1	-3.9	-1.3
임금근로자	2.2	3.8	1.6	3.4	2.0	1.7	2.5	2.1
상용직	5.0	2.2	5.9	4.9	4.0	4.6	4.6	3.6
임시직	2.6	3.4	2.4	1.6	-0.7	-2.0	-1.7	-0.3
일용직	-5.9	9.7	-12.5	2.7	1.7	-0.1	4.9	2.0

주 : 2005년 1~11월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표 4〉 성별·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추이

(단위 : 천명, %)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단기 근로	특수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가내 근로
전체	2002	10,190 (72.6)	3,840 (27.4)	2,022 (14.8)	807 (5.9)	423 (3.1)	749 (5.5)	88 (0.6)	346 (2.5)	239 (1.8)
	2003	9,542 (67.4)	4,606 (32.6)	3,013 (21.3)	929 (6.6)	589 (4.2)	600 (4.2)	98 (0.7)	346 (2.4)	166 (1.2)
	200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072 (7.3)	666 (4.6)	711 (4.9)	117 (0.8)	413 (2.8)	171 (1.2)
	2005	9,486 (63.4)	5,483 (36.6)	3,615 (24.2)	1,044 (7.0)	718 (4.8)	633 (4.2)	118 (0.8)	431 (2.9)	141 (0.9)
남성	2002	6,320 (76.5)	1,938 (23.5)	1,150 (13.9)	228 (2.8)	263 (3.2)	329 (4.0)	45 (0.6)	208 (2.5)	46 (0.6)
	2003	5,996 (72.4)	2,286 (27.6)	1,582 (19.1)	240 (2.9)	381 (4.6)	229 (2.8)	41 (0.5)	204 (2.5)	18 (0.2)
	2004	5,756 (67.8)	2,732 (32.2)	1,916 (22.6)	278 (3.3)	395 (4.7)	308 (3.6)	53 (0.6)	239 (2.8)	24 (0.3)
	2005	5,947 (68.5)	2,736 (31.5)	1,864 (21.5)	309 (3.6)	466 (5.4)	240 (2.8)	43 (0.5)	247 (2.9)	14 (0.2)
여성	2002	3,870 (67.1)	1,902 (32.9)	913 (15.8)	579 (10.0)	149 (2.6)	443 (7.7)	48 (0.8)	124 (2.1)	190 (3.3)
	2003	3,546 (60.4)	2,320 (39.6)	1,431 (24.4)	689 (11.8)	208 (3.6)	371 (6.3)	57 (1.0)	142 (2.4)	148 (2.5)
	2004	3,434 (56.3)	2,662 (43.7)	1,681 (27.6)	794 (13.0)	271 (4.4)	403 (6.6)	64 (1.0)	174 (2.9)	147 (2.4)
	2005	3,539 (56.3)	2,747 (43.7)	1,751 (27.9)	736 (11.7)	252 (4.0)	394 (6.3)	75 (1.2)	183 (2.9)	127 (2.0)

주 :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의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시적/시간제/단기/특수/파견/용역/가내근로의 ()안의 비중은 각각의 고용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자료, 원자료, 각년도.

보도록 하겠다. 2002년 임금근로자의 27.4%를 차지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004년 37.0%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5년 증가세를 멈추고 소폭 감소한 36.6%를 기록하였다. 근로자수로 보면 2004년 539만 명에서 2005년 548만 명으로 약 9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점하고 있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주로 임시근로자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인다. 이들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와는 다르게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일정기간 동안을 계약함으로써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02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바람을 타고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고용조정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정규직을 대체하여 2004년까지 186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년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는 2004년에 비해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하여 꾸준히 이어오던 증가세를 누그러뜨리면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소폭이나마 감소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나누어 봤을 때 남성은 2005년 들어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하였고 특히 한시적 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이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 2004년에 비해 2005년 비정규직의 비중은 변화가 없지만, 규모가 증가했고 이는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했다. 최근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증해오던 추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근로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취업자의 취업시간별 고용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전체 근로자의 10.1%인 단시간 근로자는

〈표 5〉 취업시간별 고용비중 추이

(단위 : 천명, %)

		2001	2002	2003	2004	2005(1~10월)
전 체	1~35시간	2,150 (10.1)	2,330 (10.6)	2,417 (11.1)	2,571 (11.6)	2,803 (12.5)
	36시간 이상	19,196 (89.9)	19,597 (89.4)	19,438 (88.9)	19,673 (88.4)	19,678 (87.5)
임금근로자	1~35시간	1,104 (8.2)	1,203 (8.6)	1,320 (9.3)	1,417 (9.7)	1,582 (10.6)
	36시간 이상	12,394 (91.8)	12,800 (91.4)	12,870 (90.7)	13,254 (90.3)	13,312 (89.4)
자영업자	1~35시간	720 (16.2)	771 (17.1)	749 (17.2)	802 (18.4)	851 (19.2)
	36시간 이상	3,727 (83.8)	3,756 (82.9)	3,608 (82.8)	3,561 (81.6)	3,589 (80.8)

주 :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뺀 수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자료, 원자료, 각년도.

2005년(1~10월) 12.5%로 그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검토해 보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2005년 전체 자영업자의 19.2%의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5 참조). 이것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 등 고용불안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2005년 임금상승률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지만 임금격차 확대추세는 여전

2003년까지 경제상황에 비해 높게 나타났던 임금상승률은 2004년 들어 예년에 비해 안정화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2005년에도 이어져 2005년 1~9월 현재 6.8%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10~12월을 포함한 2005년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2004년 10~12월의 임금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에 따른 기술적 반락효과로 인해 2004년과 동일한 수치인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노사간 협약에 의한 임금상승률을 나타내는 협약임금인상률은 2005년 1~11월 현재 전년동기에 비하여 0.7%포인트 낮은 4.8%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06년 임금상승률은 내수회복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5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최근 임금동향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p
						1~9월	1~9월	
명목임금 상승률	8.0	5.0	11.2	9.2	6.0	5.4	6.8	6.0
협약임금 인상률	7.6	6.0	6.7	6.4	5.2	5.5	4.8	-

주: 1) p는 전망치임.

2) 2005년 협약임금 인상률은 1~11월 통계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및 「임금교섭타결현황」 각년도.

2002년 이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을 보면 전규모 평균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규모간 양극화 현상을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5년에도 이어져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의 2005년 1~9월 누계수치를 보면,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7.9%로 나타나 전규모 평균 상승률 6.8%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월노동통계조사」와 더불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나타난 평균임금 수치를 보더라도 2005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다른 규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500인 이상 규모와 비교한 임금격차 수준은 대부분의 규모에서 전년인 2004년보다 소폭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추세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7〉 규모별 임금상승률 동향(매월노동통계조사)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월	1~9월
5~9인	6.8	5.5	9.1	5.2	6.4	6.7	8.4
10~29인	8.8	7.3	6.2	6.1	7.6	7.8	6.5
30~99인	8.9	7.2	10.5	8.0	6.0	6.0	6.3
100~299인	9.8	4.2	15.8	7.9	7.1	6.9	5.9
300~499인	10.0	8.2	10.4	5.0	8.4	8.3	4.8
500인 이상	8.7	5.4	17.5	11.9	9.3	6.2	7.9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표 8〉 규모별 임금상승률 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1~4인	7.4	7.3	5.3	4.9	2.2
5~9인	7.2	7.3	7.1	2.3	4.1
10~29인	8.6	7.8	8.4	5.0	3.5
30~99인	10.0	4.7	11.2	5.3	4.0
100~299인	8.3	5.4	10.6	5.3	2.3
300인 이상	11.7	8.8	12.2	5.6	3.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표 9〉 규모별 임금격차(500인 이상=100.0, 매월노동통계조사)

(단위 : 500인 이상=1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월	1~9월
5~9인	58.0	58.1	53.9	50.7	49.3	51.5	51.8
10~29인	68.2	69.4	62.7	59.4	58.5	61.0	60.2
30~99인	71.4	72.6	68.3	65.9	63.9	66.3	65.3
100~299인	78.0	77.2	76.0	73.3	71.8	73.9	72.5
300~499인	89.9	92.3	86.7	81.3	80.7	83.0	80.6
500인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표 10〉 규모별 임금격차(300인 이상=100.0,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300인 이상=1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4인	45.0	43.2	42.6	40.0	39.7
5~9인	58.6	56.2	55.4	52.8	51.2
10~29인	67.9	66.0	65.3	63.1	62.7
30~99인	78.5	77.3	74.4	73.7	73.5
100~299인	86.1	83.4	80.8	79.7	79.4
300인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표 11〉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추이

(단위: 원/시간, %)

	2002. 8	2003. 8	2004. 8	2005. 8
전체 임금근로자	6,572 (-)	7,386 (12.4)	7,900 (7.0)	8,260 (4.6)
정규직	6,942 (-)	8,139 (17.2)	8,756 (7.6)	9,263 (5.8)
비정규직	5,589 (-)	5,824 (4.2)	6,440 (10.6)	6,526 (1.3)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총액÷(주당 평소근로시간×4.3)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2〉 고용형태별·성별 시간당 임금추이

(단위: 원/시간, %)

		2002	2003	2004	2005
전체 임금근로자	남성	7,737 (-)	8,754 (13.1)	9,273 (5.9)	9,767 (5.3)
	여성	4,904 (-)	5,453 (11.2)	5,987 (9.8)	6,188 (3.4)
정규직	남성	8,148 (-)	9,540 (17.1)	10,218 (7.1)	10,850 (6.2)
	여성	4,973 (-)	5,771 (16.1)	6,306 (9.3)	6,596 (4.6)
비정규직	남성	6,396 (-)	6,693 (4.6)	7,283 (8.8)	7,393 (1.5)
	여성	4,765 (-)	4,968 (4.3)	5,575 (12.2)	5,663 (1.6)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총액÷(주당 평소근로시간×4.3)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나타난 2005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정규직 9,263원, 비정규직 6,526원으로 나타나는데,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0.5%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년인 2004년의 73.5%보다 임금격차가 소폭 확대되었다.

한편, 전년대비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정규직이 2004년 7.6%에서 2005년 5.8%로 소폭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은 2004년의 10.6%에서 2005년에는 1.3%로서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2005년 들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임금상승률의 변화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정규직 남성은 2004년 8.8%에서 2005년 1.5%로 7.3%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 여성은 2004년 12.2%에서 2005년 1.6%로 10.6%포인트나 하락하여 성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III. 2006년 고용전망

1. 경제전망

내수침체와 수출증가율의 둔화, 그리고 유가상승의 악재 속에서 2005년 1/4분기는 전반적으로 하강국면에 있었지만 2/4분기부터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가 완만히 증가하는 등 2년간 침체기를 겪던 내수부문이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06년에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 등 내수부문의 회복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자리수의 성장세를 지속함에

〈표 13〉 주요 기관의 2006년 경제전망

(단위: %)

		경제 성장률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	수입	소비자 물가	실업률
한국은행 (2005. 12)	상반기	5.5	4.4	5.0	1.3	12.4	10.6	2.6	3.8
	하반기	4.6	4.6	5.8	2.1	9.3	10.3	3.4	3.3
	연간	5.0	4.5	5.4	1.7	10.8	10.4	3.0	3.6
KDI (2005. 11)	연간	5.0	4.6	8.5	1.5	10.6	10.9	3.1	3.7
LG경제연구소 (2005. 10)	연간	4.6	3.6	6.8	1.1	11.3	9.5	3.3	3.5
삼성경제연구소 (2005. 10)	연간	4.8	4.9	6.5	3.4	8.6	11.2	3.6	3.6
한국경제연구원 (2005. 10)	연간	4.9	5.2	7.7	3.1	8.8	13.4	2.9	3.8

주: 수출 및 수입은 통관 기준.
자료: 개별 기관.

따라 경제성장률은 금년(3.9%(한국은행, 2005. 12))보다 높은 5%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고유가 문제와 부동산의 불안정성 등이 남아있는 데다 잠재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소비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2. 고용전망 및 과제

2005년 하반기에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사정도 점차 좋아지고 있으며 내수의 회복과 수출의 증가 등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고용사정도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2.3%까지 상승해 전년대비 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소비나 설비투자와 같은 내수회복의 영향으로 취업자증가율은 2005년에 비해 0.4%포인트 높은 1.8%로 그리고 취업자는 약 4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회복된 경기에 따라 증가된 노동공급을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용률은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한 60.1%로 예측하며, 실업률은 전년대비 0.2%포인트 감소한 3.6%로 예측하고 있다.

실물경기의 영향을 늦게 받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2006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5.5% 정도 되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은 62.2%, 취업자증가율은 1.8%, 취업자는 약 389천 명이 늘어나고 고용률은 59.9%, 실업률은 3.7%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기회

〈표 14〉 2006년 주요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명, %)

	2005p			2006p		
		상반기	하반기p		상반기p	하반기p
경제성장률	3.9	3.0	4.7	5.0	5.5	4.6
생산가능인구	38,295 (1.5)	38,143 (1.4)	38,448 (1.7)	38,717 (1.1)	38,562 (1.1)	38,871 (1.1)
경제활동인구	23,767 (1.5)	23,613 (1.3)	23,922 (1.7)	24,137 (1.6)	23,968 (1.5)	24,306 (1.6)
참가율	62.1	61.9	62.2	62.3	62.2	62.5
취업자 (증가율) (증감수)	22,872 (1.4) (315)	22,686 (1.2) (262)	23,059 (1.6) (369)	23,279 (1.8) (407)	23,085 (1.8) (398)	23,474 (1.8) (415)
고용률	59.7	59.5	60.0	60.1	59.9	60.4
실업자	895	927	863	857	883	832
실업률	3.8	3.9	3.7	3.6	3.7	3.4

주 : p는 전망치임.

복의 탄력을 받는 2006년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62.5%, 취업자증가율이 1.8%, 취업자가 415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고용률은 60.4%, 실업률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의 주요 정책적 함의

2006년의 경우 고용의 양적 지표는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정책의 주요 목표를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들어 청년층보다 중·고령자의 고용성고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인구구조가 40대 이상의 중·고령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이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매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연령계층에서의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 계층의 고용가능성 및 고용기회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올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도 남성(1.1%)의 수준을 상회한 1.8%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여성의 고용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별 비정규직 추이에서 보았듯이 여성의 비정규직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시적 근로와 시간제 근로의 증가를 여성이 주도한 점을 보아 늘어난 여성의 고용을 노동시장의 취약한 부분에서 상당부분 흡수한 것으로 보여져 양질의 일자리에 여성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별 고용구조를 봤을 때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자체는 선진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세부 업종별 생산 및 고용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지속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제조업에서의 고용창출 잠재력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고 고용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서비스업 내에서도 개인이나 유통서비스업에서 생산자 및 사회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업에서 낮은 생산성-낮은 질의 고용-낮은 임금의 악순환구조(Baumol's disease of service economy)의 가능성이 있다. 개인서비스업이나 유통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안정 전망의 확대를 대응해야 할 것이고, 생산자서비스나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성과 고용의 질을 더 높이는 방향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취약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6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단시간 근로를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규모간 과도한 임금격차는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서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인상률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부담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구조하에서 중소하청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 임금교섭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추세는 둔화된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생산성 격차 이상으로 임금 및 고용 등에서 격차가 존재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부표 1〉 산업별 취업동향

(단위 : %, 천명)

	2001	2002	2003	2004	2005 (1~11월)
전 산업	2.0 (417)	2.8 (597)	-0.1 (-30)	1.9 (418)	1.4 (308)
농림어업	-4.2 (-95)	-3.7 (-79)	-5.8 (-119)	-6.4 (-125)	-0.1 (-2)
광업	7.0 (1)	-0.9 (0)	-4.2 (-1)	-6.5 (-1)	9.1 (1)
제조업	-0.6 (-27)	-0.6 (-26)	-0.9 (-36)	2.0 (85)	-1.3 (-5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9.1 (-6)	-10.1 (-6)	44.9 (24)	-4.8 (-4)	-2.5 (-2)
건설업	0.3 (5)	10.2 (161)	4.0 (69)	0.2 (4)	0.1 (1)
도매 및 소매업	2.6 (98)	1.5 (60)	-3.0 (-120)	-1.7 (-66)	-1.5 (-57)
숙박 및 음식점업	1.2 (24)	3.3 (64)	-1.3 (-25)	3.8 (76)	0.0 (-1)
운수업	4.3 (46)	2.3 (26)	-4.9 (-55)	4.0 (43)	2.1 (24)
통신업	8.5 (16)	11.1 (23)	7.6 (18)	-0.2 (-1)	11.9 (30)
금융 및 보험업	1.1 (8)	-3.4 (-26)	2.3 (17)	-1.7 (-13)	0.6 (4)
부동산 및 임대업	8.3 (29)	8.5 (32)	2.6 (11)	7.0 (30)	9.4 (43)
사업서비스업	13.7 (139)	8.9 (102)	4.2 (53)	12.1 (158)	5.6 (8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57)	0.1 (1)	7.8 (55)	1.5 (11)	3.1 (24)
교육서비스업	3.8 (45)	8.0 (99)	11.2 (149)	1.5 (23)	3.8 (5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3.0 (56)	13.8 (67)	-2.1 (-12)	10.2 (55)	8.8 (5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7.7 (28)	6.4 (25)	1.6 (7)	7.8 (33)	9.4 (4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0.0 (89)	6.5 (64)	-4.2 (-44)	17.5 (174)	5.2 (61)
가사서비스업	10.5 (20)	4.5 (9)	-10.7 (-23)	-35.1 (-67)	4.2 (5)
국제 및 외국기관	-16.4 (-3)	17.0 (3)	22.4 (4)	8.6 (2)	0.0 (0)

주 : ()안은 취업자 증감인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부표 2〉 산업별 취업계수

(단위 : 명/십억)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	서비스		
				음식숙박	생산자 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1992	56.6	63.1	51.4	119.1	59.9	40.6
1993	54.1	56.9	51.0	123.4	55.7	39.2
1994	51.8	51.4	50.1	122.5	54.2	37.4
1995	49.0	46.7	48.5	117.3	51.7	36.3
1996	47.1	43.0	47.9	115.6	52.6	34.5
1997	45.7	39.4	47.6	116.4	54.5	33.5
1998	45.6	36.9	48.4	125.3	54.9	36.4
1999	42.7	31.1	47.1	111.7	55.9	37.4
2000	41.2	28.4	46.3	103.5	59.9	34.9
2001	40.4	27.6	46.0	101.0	59.9	35.4
2002	38.9	25.5	44.4	97.8	51.4	36.1
2003	37.7	24.0	43.8	98.3	52.9	37.9
2004	36.6	22.0	44.7	98.9	57.3	38.7

주 : 1) 취업계수=취업자/GDP(10억원)

2) 서비스업=도소매 및 음식업+운수창고 및 통신업+금융보험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기타서비스업

3) 생산자서비스업(Producer services)=금융보험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4) 사회서비스업(Social services)=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부표 3〉 고용전망 모형 추정결과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로그값)
상수항	20.497(5.68)***	2.909(5.74)***
전년 동분기값	0.669(11.74)***	0.551(7.27)***
경제성장률	0.087(5.34)***	
로그 실질GDP		0.452(12.53)***
로그 실질GDP의 전년 동분기값		-0.320(-6.55)***
건설투자증가율	-0.017(-2.39)**	
실업률	-0.165(-2.20)**	
시간항	0.035(2.82)***	
IMF 가변수	-0.374(-1.61)	-0.016(-4.83)***
1/4분기 가변수	-0.604(-3.14)***	-0.011(-2.57)**
3/4분기 가변수	-0.075(-0.60)	0.001(0.35)
4/4분기 가변수	-0.093(-0.71)	-0.015(-3.32)***
adj. R2	0.9357	0.9864

주 : 1) ()안의 수치는 t값.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10%임.

3) 분석자료는 1980년 1/4분기부터 2005년 3/4분기 실적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